

한가위 가정 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부름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인 도 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07:1 새번역)

지난 일 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가위 가정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한가위를 맞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82장(통 432) 다 같 이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기 도 가 족 중

- 올 한해를 보내는 동안 가족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 조상들과 부모·형제에 대해 감사하며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소망하며)
-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가족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경봉독 시편 126:1~6() 인 도 자

¹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²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³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단가! ⁴주님, 네 껍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⁵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⁶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썸 “기쁨으로 거두는 단” 인 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며 부른 감격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1절)”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절기인 한가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5절)”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을 기경하고, 가뭄과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 모두의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시기(3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을 풍성한 단으로 바꾸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가위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 송 301 (통 460)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찬송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것이나, 잘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yedarm.or.kr)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가정예배)